문화광장

‘더 도쿄 토일렛 프로젝트’서 공공디자인의 미래를 보다

양 건
건축학박사·가우건축 대표

벌써 한 해도 더 지난 작년 여름 일이다. 제주 한림의 작은 영화관에서 빔 벤더스(Ernst Wilhelm Wenders) 감독의 영화 ‘퍼펙트 데이즈’를 관람했었다. 빔 벤더스의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배경으로 등장하는 일련의 화장실이 일본 스타 건축가들의 작업이라는 점은 더욱 영화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주인공 ‘히로야마’역을 맡은 일본의 국민배우 ‘야쿠쇼 코지’의 연기는 화장실 청소부의 소소한 일상을 아름다운 감동으로 치환한다. 더불어 현실의 삶에서 잊혀있던 존재의 감각을 깨워준다. 한동안 영화의 잔잔한 여운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도쿄 여행의 목적이 생겼다.

마침내 지난 가을 도쿄 시부야구 17개 화장실 중 몇 곳을 둘러봤다. 첫 방문지는 쿠마 켄고의 ‘나베시마 마츠타마 공원 화장실’이다. 어린이 놀이터 한편에 서 있는 목재로 마감된 화장실이다. 이용객들께는 민망했지만 마치 사냥꾼처럼 집의 구석구석을 들춰보고 있는데, 공식 투어 프로그램에 의해 도슨트를 따라 여행객들이 몰려왔다. 이미 시부야의 인기 여행 코스가 된 듯했다.

다음은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이토 토요의 ‘요요기 하치만 공중화장실’을 답사했다. 타일 마감의 원통형 화장실은 낯선 친숙함이 있다. 건축의 뒤편 공원은 퍼펙트 데이즈의 야쿠쇼 코지가 필름 카메라로 ‘코모레비’(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빛)를 촬영하던 장소다. 벤치에 앉아 바람결에 흔들리는 나뭇잎 사이로 일렁이는 햇볕을 감상했다. 영화를 보지 않았다면 이 아름다운 광경을 쳐다보기라도 했을까? 새삼 무뎌진 감각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다음 코스는 시게루 반의 ‘요요기 후카마치코 공원 화장실’로 답사 전에 가장 궁금했던 건축이다. 사용 중일 때는 벽체가 불투명하지만, 평상시에는 투명하게 안이 들여다보이는 첨단기술이 적용된 건축인데, 실망스럽게도 고장이 나 있었다. 내구성 측면에서 공중의 사용에 버티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요요기 공원 인근에는 제주 본태박물관을 설계한 안도 다다오의 ‘진구도리 공중화장실’이 있다. 금속 재질의 원형 오브제적 건축으로 경쾌한 느낌을 준다.

이어서 영화 첫 장면에 등장하는 마키 후미히코의 ‘에비스 히가시 공원 화장실’을 둘러봤다. 하얀 철판으로 만들어진 중정, 벤치, 화장실이 공원의 동선에 꿰어져 있는 작은 도시건축이다. 이처럼 도시 곳곳의 화장실 투어를 하며, 영화 속 주인공처럼 흥미로운 하루를 보냈다.

‘더 도쿄 토일렛 프로젝트’는 2020 도쿄 올림픽을 위해 시작된 공공시설 개선 사업으로, 문화의 레이어를 덧씌워 건축으로 도시의 정체성을 세우는 전략이 모범적이다. 이러한 수법에 더해, 수년이 지난 지금도 여행객이 찾아오는 지속 가능성의 측면에서도 공공디자인 정책에 의미 있는 레퍼런스라 할 수 있다.

사설

농산물 절도 순찰 강화하고 범인 검거해야

최근 감귤밭에서 도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감귤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제주시 봉개동의 한 감귤밭에서 수확을 앞둔 감귤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현장에 남은 흔적을 토대로 50대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밭떼기 거래를 한 밭이라고 생각해 인력을 동원해 감귤을 수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피해 감귤밭과 인접한 다른 밭을 밭떼기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감귤밭 주인 행세를 하면서 상인들에게 이중으로 밭떼기 거래를 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4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농산물 절도 피해 건수는 총 118건이다. 감귤류가 49건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농산물 절도 사건 검거율은 2022년 60.9%, 2023년 42.1%, 지난해 34.5%로 해마다 하락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내년 3월 말까지 농산물 절도 방지 대책기간을 운영해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애지중지 키운 농산물을 하루아침에 도난당한 농가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다. 다행히 범인을 검거해 해결하는 사례도 있지만 검거율에서 보듯 범인잡기가 쉽지 않다. 절도 현장이 인적이 드문데다 주변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다반사여서 범인을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농산물 절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확한 농산물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등 농가 스스로도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 또 경찰도 마을 청년회 등과 협업해 순찰을 강화해 범인을 검거해야 한다.

곶자왈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 마련 시급

제주의 허파 곶자왈이 쓰레기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시간에 몰래 투기한 쓰레기 양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곶자왈사람들은 최근 워크숍을 통해 곶자왈 내 쓰레기 무단투기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곶자왈사람들은 2018년부터 곶자왈 내 불법 훼손 감시와 적발을 위해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모니터링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21회 실시됐다. 곶자왈 내 무단투기가 이뤄진 곳은 임도가 개설된 곳,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작업로, 도로 옆 함몰지, 차량 진입이 용이한 곳 등 다양했다. 폐기된 쓰레기들은 매트리스와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폐기물부터 건축용 폐기물, 농업용 폐기물까지 다량으로 확인됐다. 또 방치된 폐기물 위로 식물이 자라고 쓰레기에 고인 빗물이 썩은 곳도 있었다. 특히 무단투기 경고 안내판이 설치됐음에도 안내판 아래 버젓이 투기한 현장도 발견됐다. 이에 곶자왈사람들은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 상습 투기지역 폐쇄회로(CC)TV 설치, 마을 청년회 등과 연계한 감시단 구성 등을 제안했다.

곶자왈은 제주의 용암지대에 만들어진 특이한 숲이다. 제주의 허파라고 불리는 곶자왈은 여러 식물들이 함께 자라고 있어 독특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길이 보전해야 할 소중한 유산에 쓰레기 무단투기는 양심을 버리는 행위나 진배없다. 무단투기가 횡행하고 있음에도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다. 차제에 곶자왈 내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열린마당

기술이 아닌 태도가 실력을 결정한다

표 지 웅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최근 여러 대학 시험장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시험장에서조차 AI의 힘을 빌리려는 사례가 등장했다는 점은 기술의 빠른 확산 속에서 대학 교육이 어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보여준다.

AI는 이미 대학생의 일상 속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다. 보고서 초안을 만드는 일에서부터 PPT 구성, 번역, 요약까지 다양한 과제가 AI의 도움을 통해 빠르게 해결된다. AI는 학습의 효율적인 도구가 됐지만, 그만큼 스스로 사고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쉽게 간과된다.

그렇다고 AI 사용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기술 의존에 대한 태도다. 생각의 과정 없이 결과만 받아들이거나, 제공된 내용을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행동은 학생 자신의 역량을 약화한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판단하고 선택하는 책임은 결국 사용자에게 있다.

학생들이 고민해야 할 것은 ‘AI를 사용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다.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어떤 기준과 원칙을 바탕으로 책임 있게 사용할 것인가’다. AI가 제공한 정보를 검토하고, 나의 언어로 재정리해 자신의 이해로 연결하는 과정은 어떤 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책임감 있는 학습 태도야말로 대학생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제주시 동지역서 세 번째 ‘현장 도지사실’

9일 이도2동, 12일 노형동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오는 9일 이도2동주민센터, 12일 노형동주민센터에서 제주시 동지역 ‘현장 도지사실’을 운영할 계획.

이어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3일부터 8일까지 민원 내용을 담아 면담을 원하는 장소를 선택해 주민센터 방문, 이메일(jejusaturi@korea.kr), 팩스(064-710-3359)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고, 민원 상담 시간은 8일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

앞서 서부·동부권에서 진행된 ‘현장 도지사실’은 오 지사가 직접 주민들과 마주 앉아 생활 속 불편사항부터 정책 건의까지 폭넓은 의견을 듣고, 관련 부서와 함께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 오소범기자

체불 대응 노트 다국어 발간

○…제주도노사민정협의회와 제주도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제주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임금체불 예방·대응 노트’를 6개 언어로 제작해 배포.

해당 노트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네팔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으로 제작됐으며 근로계약,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연락처 등을 비롯해 작업일지도 함께 수록.

이들 기관은 “‘임금체불 없는 동행 일터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 전문과 이를 언어별로 구분한 파일, 작업일지 양식 등 3종의 PDF 파일로 제작해 양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배포하고 있다”고 설명. 백금탁기자

부 고

전영순(前 중등교사) 남편 **연주현공 경삼(前 중등교장, 향년 82세)**께서 서기 2025년 12월 1일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 **2025년 12월 3일(수요일)**
▶발인일시 : **2025년 12월 4일(목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 **부민장례식장 4빈소**
▶장 지 : **양지공원→금악리 선영**

배우자 전영순
아 들 현용욱 며느리 홍주진
용권 이정은
딸 현주희
손 현지원
지운
지율

※ 연락처 : 전영순 010-4134-5111
현용욱 010-3161-6443

감사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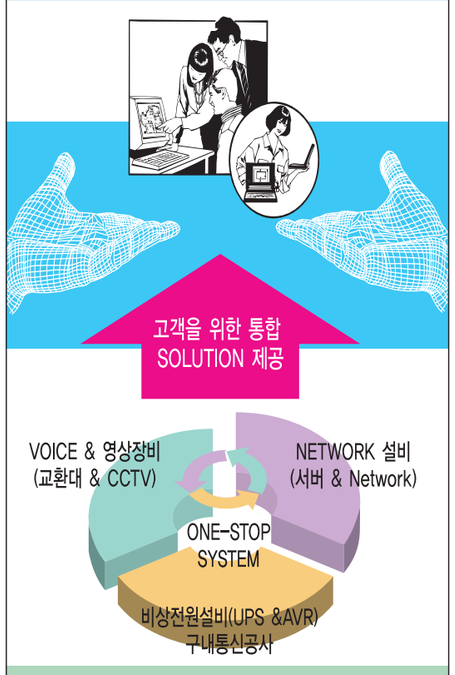
이번 저희 아버지 **居昌愼公 鏞實 (향년 92세, 前 초등교장, 11월 29일 04시 별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5년 12월 2일

배우자 양후춘
아 들 신원철 며느리 김정순
신원영 김정현
딸 신혜심 사 위 홍재형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토박이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 주 개 발
☎ 782-3644
010-4690-3636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 깨끗한 환경 건강한 생활 ●
제주, 입주청소
하수구뻥, 변기교체 제초작업/벌초대행
010-4025-6424
- 입주, 이사, 거주, 부분청소 -
아파트, 빌라, 연립, 펜션, 개인주택, 식당, 상가, 학원, 사무실, 공연장 등등
줄눈시공/방충망교체/생활폐기물처리
싱크대수전교체/곰팡이제거
주거환경을 깨끗하고 산뜻하게 입주 첫 날의 그 깨끗함, 그대로를 재현합니다.
제주크린 등록번호:616-16-81361
세금계산서 발행, 카드결제 가능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